

전남 동부권

1000억원 매출 여수 대형마트 지역상품 구매 고작 4500만원

우선구매 약속 안 지켜

여수지역 대형마트들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실제로는 지역상품과 지역업체를 확대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여수 이마트는 지난 2001년 여수시와 맺은 15개 항의 지역친화사업 이행각서를 통해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지역금융기관과 예금거래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 여수, 여천점도 지난 2005년 6개 항의 협정서를 맺었으나 이행실적은 제로에 가깝다.

지역상품 구입실적을 살펴보면 이마트 여수점은 지난 2009년 70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역상품 구매금액은 9억3000만원(1.32%)에 불과했으며, 롯데마트 여수·여천점도 같은 기간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렸으나 지역상품 구매는 겨우 4500만

원에 그쳤다. 또 대형마트 한 곳에 납품하는 업체 수는 평균 2000~3000여 곳에 달하지만 여수지역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는 이마트 9곳, 롯데마트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트 여수점의 경우 입점업체 9곳 중 지역업체는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4곳은 타지역 업체 명의를 빌려 납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개혁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에 어렵게 입점을 했더라도 할인행사 강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입점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A 업체는 신선한 수산물 판매로 지난해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포기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입점 수수료가 25~30%로 높는데다 1년에 100일 이상 할인행사 참여 등 대형마트들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가 어려웠다"며 "인터넷 쇼핑몰 등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들이 지역은행과 예금거래도 하지않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태다.

롯데마트 여수, 여천점은 지난 2005년 개점 이래 지금까지 지역은행과 예금 거래실적이 전혀 없다.

이마트 여수점은 지난 2001년 이행각서를 통해 지역은행에 매년 4억원의 잔고를 유지키로 했지만 지난해 지역은행과 거래한 예금 실적은 3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 경영기획실은 규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의 협약 이행실적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YWCA 성혜란 부장은 "여수시와 소비자단체, 대형마트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지역현원을 이끌고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곡성 친환경 딸기 출하요”

맛이 좋아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곡성군 곡성을 대평리 딸기재배 농가들이 수확한 딸기를 선별하고 있다. 곡성 딸기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당도가 높고

(곡성군 제공)

원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 압화대전 작품 공모

구례군이 올해로 10번째 '대한민국 압화(壓花)대전'을 개최한다.

구례군은 올해 대회를 ▲국내 공모전 ▲국제공모전 ▲입체작품 공모전 ▲국제세미나까지 확대해 '세계 압화 예술인의 축제'로 추진한다.

'국내전'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3개 부문(풍경·추상·응용)으로 1인당 2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3차 심사를 거쳐 150여 점을 선정한다.

'국제전'은 자유작으로 1차 세계 압화예술협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수송해 국내전과 같이 심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입체작품 공모전'은 새롭게 유망하고 있는 입체 건조화와 보존화를 공모한다. 출품규격은 자율창작으로 야생화와 화훼의 다양한 장르를 개척,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광양 음식물 퇴비 전국 모델로

환경부 현지 방문해 운영실태 등 확인

광양시의 선진 음식물자원화 기법이 전국으로 전파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문정호 환경부 차관이 21일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문차관은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 광양시의 앞선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음식물 무방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올해 환경부가 주최한 '제65회 남은 음식물 자원화 및 음식물 자원화 공모전'에서 광양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뒤 이뤄졌다.

광양시는 지난 2009년 10월 관련

시설의 증설공사 준공 이후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성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45t의 음식물 쓰레기를 20t의 음식물 쓰레기 부속화 퇴비로 변모시켰다.

또한 해당 퇴비를 2010년부터 유상 공급(포장퇴비 기준 2kg당 2300원)을 실시했고, 올해 농협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 부가까지 창조에도 모범적 사례로 손꼽혔다.

배연호 위생처리사업소장은 "환경부 차관의 방문을 계기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 성공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겠다"면서 "국고보조가 필요한 현안시설 사업에 대한 지

새 얼굴

“청정바다 보전 방제시스템 구축”

김두석 여수해양경찰서장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해양안전 시스템과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제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두석(53)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엄정한 범죄수사 확립과 국민이 신뢰하는 평온한 해상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서장은 “혈연·지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신명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도 출신인 김서장은 지난 1991년 간부공채(39기)로 해경에 투신해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본청 광역수사단장, 형사과장, 국토해양부 치안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순천만 흑두루미가 초대하는 겨울여행

시, 내달 27일까지 탐조투어

순천시가 2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순천만에서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와 함께 하는 '철새 탐조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탐조투어는 해설사와 함께 천

문대에서 흑두루미 등 철새를 관찰하고 갈대밭 트레킹후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선 탐방과 순천만 자연생태관 생태교실에서 새끼리·나무줄새 만들기 등을 체험한다.

이번 프로그램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전화로 사전 예약하거나 순천만 안내소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만 5



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체험비는 1인당 6000원이다. 문의 (061-749-3328)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완주에 ‘고온 플라즈마 응용센터’

전북과학단지내 내달 착공...50개 신규기업·1만명 고용창출

국내 처음으로 세계적 수준의 '고온 플라즈마(Plasma) 응용 연구센터'가 올 연말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전북과학단지내 들어선다.

완주군은 다음달 봉동읍 용암리 전북과학단지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온 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

플라즈마는 고체·액체·기체에 이어 이온화된 '제4의 신물질'이다.

고온 플라즈마(2.4MW급) 발생장치 설치를 핵심으로 한 이 응용센터 구축사업에는 392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올해 연말까지 전북과학단지 3만3000㎡에 들어선다.

이번 사업비는 ▲교육과학기술부 296억원 ▲완주군 46억5000만원 ▲전북도 30억원 ▲전북대 2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고온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사업은 화학·소재·열공학·항공역학 등이 융합된 기초 첨단 연구분야의 핵심시설로 첨단엔진, 우주항공 등에 활용되는 초고온 소재개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플라즈마는 핵융합 발전연구에 활용되는 초고온과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저온으로 나뉜다. 플라즈마 기술은 ▲신소재 합성 ▲첨단소재 개발 ▲신재생에너지 창출 등 응용범위가 다양해 세계시장이 400조 원대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이 응용센터에 이어 오는 2018년까지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사업과 고출력에너지 레이저-플라즈마 응용연구 등 4개 사업에 2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플라즈마 응용이 상용화하면 각종 부품소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50개 이상의 기업과 1만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이 사업은 탄소밸리사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길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김용철기자 knews@



“DIY 가구 기성품 못지 않죠?”

전주시민들이 전주 공예품전시관 기획전에서 열리고 있는 '전통자

맞춤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이수생들의 작품발표 전시회를 찾아 소

형 서랍장 등을 감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전통 목공예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제공)

전 북

“금강변에 생명의 나무를 심자”

군산시 주민참여 '희망의 숲' 조성

군산시는 금강 철새조망대앞 금강살리기 사업지구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금강 희망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강 희망의 숲'은 시민 누구나 '금강살리기' 사업에 직접 참여해 아름다운 금강을 가꿀 수 있는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수목을 구입해 금강둔치에 식목행사 기간동안 식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철새조망대앞 3000㎡정도의 시민참여 부지를 마련했고, 산림조합과 협의해 식재수



종 및 방법을 확정된 후 시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강 희망의 숲이 조성되면 자연과 지역의 정

서가 어우러지는 테마공간은 물론 금강을 아름답게 가꾸는 즐거운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주 35사단 임실 이전 탄력

범원 “절차 하자 없어”... 주민 이견취소소송 기각

전주시에 위치한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임실군민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임실주민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35사단 부대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사

업은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 정상화한 만큼 취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9월과 11월에 임실주민이 제기한 '35사단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과정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서은중기자 seo@

불 밝힌 '전주 노송천' 환상이네

市, 200m구간 경관 조명시설 완료

47년만에 자연하천으로 복원된 전주 시내 노송천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이 완공돼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조명시설은 지난해 5월 복원작업이 마무리된 서노송동 중앙성당에서 옛 한양예식장까지 노송천 200m 구간에 설치됐으며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히게 된다. 시는 앞으로 추진할 노송천 복원 2차사업 구

간(구 한양예식장~한국은행) 역시 하천복원과 더불어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 등을 모두 지중화할 계획이다.

허승희 생태복원과장은 “복원된 노송천에 야간경관 조명 시설 설치로 야간에 유동인구가 더욱 증가해 주변 식당 등의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남원 '농정기획단' 운영

남원시가 새해들어 든든한 농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개발·실현하기 위해 '농정기획단'을 신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남원시 경제건설국장 직속 기관인 농정기획단은 팀장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됐다.

농정기획단은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개발 및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개발과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농정진단, 평가분석, 홍보, 농업소득 분석,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발굴과 사업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